

AI 전쟁 50만마리 殺처분 영암 현지 르포

국회 가축법 개정안 처리

전염병 확산 방지 비용 지원

오리 집단매몰 잔혹사에 넋잃은 농심

공무원·의용소방대 총동원

25개 농장서 가스 질식사

“오늘 출하하기로 한 오리들을 저렇게 다 죽이는 데 뭐 할 말이 있겠소. 저리 가소. 대답도 하기 싫다니까!”

13일 오후 영암군 도포면 영호리에서 오리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강모(64)씨는 축사 입구에서 기자를 보자마자 극도의 불만을 터뜨렸다.

“왜 이곳에 왔나”며 “당신들이 우리 기분을 아느냐”고 되묻던 강씨는 침울한 표정으로 축사 근처를 서성거렸다.

4등으로 이뤄진 강씨의 비닐하우스 축사에는 흰색 방역복을 입은 작업자들이 살처분 대상인 5만 마리의 오리를 이산화탄소 가스로 질식사시키는 작업중이었다. 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등 39명의 인부들은 말 그대로 오리를 죽이느라 질새가 없었다.

동시에 눈 쌓인 벌판의 한 쪽 구석에서는 굴삭기가 땅을 파고 죽은 오리가 담긴 포대 자루를 파묻고 있었다. 구덩이 안에서는 오리가 담긴 자루가 겹겹이 쌓여 갔다.

15년째 오리를 길렀고, 영암 오리협회 회장까지 지낸 강씨지만 자식같은 오리들이 무차별적으로 죽어가는데 마냥 지켜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신북면 행정리의 한 오리축사도 사정은 비슷했다. 방역복을 입은 인부들이 축사 안의 오리에게 가스를 주입해 살처분한 뒤 매몰지에 묻었다. 아직 숨이 끊어지지 않은 오리가 책꽂이처럼 울음소리가 여기 저기서 들렸다.

매몰지 근처에서 소독용품을 정리하던 조모(46)씨는 “축산농이 붕괴되면 농촌이 붕괴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한 두개 농가에서 발생한 AI로 근내 절반 이상의 축사에서 이런일이 벌어



조류 인플루엔자(AI)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가운데 13일 영암실내체육관에서 오리농가 돕기에 나선 자원봉사자들이 방역복 등을 지급받고 있다. 영암에서는 이날 757명이 긴급 투입돼 25개 농가 50만마리의 오리와 닭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했다. /영암=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지니 축산농가들 사이에도 불신감이 생겨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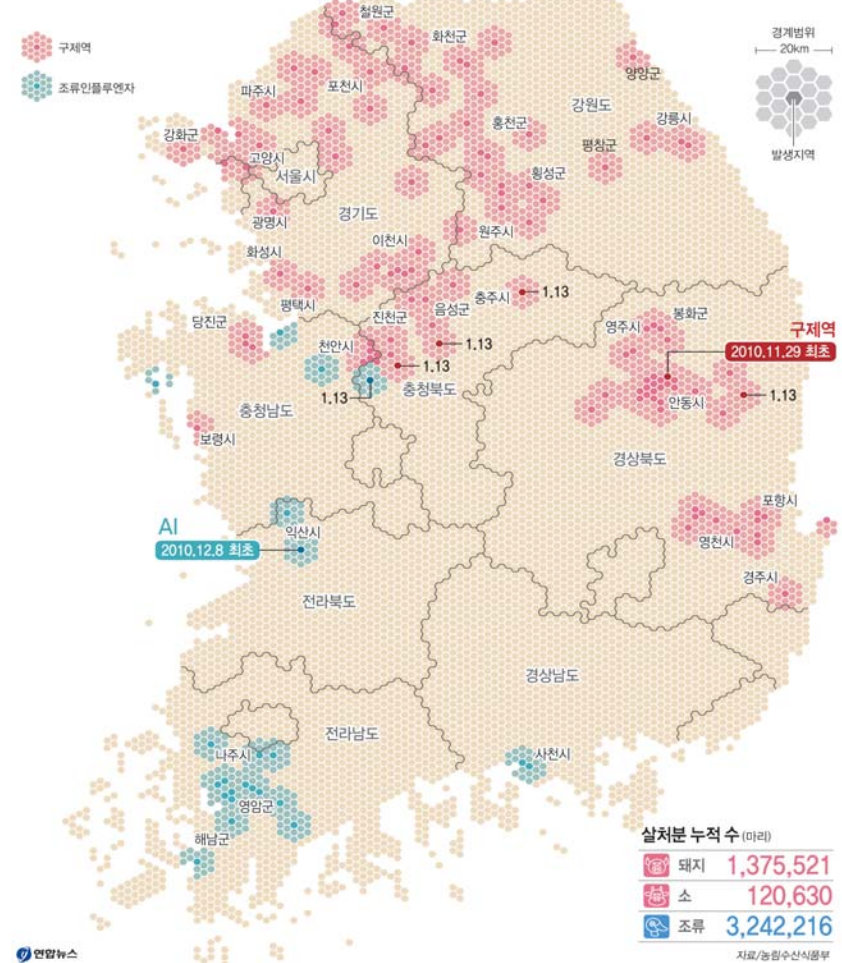
영암군은 이날 군내로 확산되고 있는 조류 인플루엔자(AI)를 막고자 대대적인 예방적 살처분에 나섰다. 시종면과 신북면, 도포면 일대에 공무원과 의용소방대, 새마을협의회 등 유관단체 회원 등 757명이 긴급 투입돼 닭장 1곳을 포함, 25개 농가 50만마리의 오리와 닭에 대한 살처분 작업을 진행했다. 이날 매몰 규모와 동원 인력은 전남에서 AI가 첫 발생한 3일 이후 최대다. AI의 확산추세가 계속되면서 기록적인 방역인원이 모인 것이다.

작업자들은 오전 11시 영암실내체육관에 모여 감염 예방을 위해 타미플루

처방과 독감예방접종을 맞고 곳곳의 축사로 흩어졌다

동원된 장비만 덩그러니 놓고 갈까 걱정하는 농가도 있었다. 반갑수 영암군 축산담당관은 “영암 2곳의 축사에서 AI가 발생해 확산을 막기 위해 3일 전부터 대대적인 예방적 살처분 작업을 하고 있다”며 “150만마리의 전체 오리 중 60% 이상이 살처분될 것으로 보이지만 규모는 더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매몰처분을 위해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고 있으나 수가 한정돼 있는데다 규모는 갈수록 커져 매몰지 마련까지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라며 “일부 농장에서는 축산주가 축사 근처 땅을 직접 구입해 묻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현황



野, 유농림 사퇴 촉구

“구제역 확산 못 막은 책임 져야”

민주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제대로 막지 못한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인색론이 확산하고 있다.

가축전염병예방법(가축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13일 오전 소집된 국회 법사위회의에서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번 구제역으로 150만두의 소·돼지가 살처분된 사실을 거론한 뒤, “과거 국민의 정부 때 2000~3000 마리가 살처분 됐어도 야당서 해임 건의안을 냈다”며 “스스로 책임지고 물러갈 생각이 있는가. 사퇴하세요”라고 물었다. 이에 유 장관이 “제가 사퇴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100번이라도 사퇴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정부가 방역대책의 마지막 수단인 ‘전국 백신’ 카드를 이날에서야 꺼내들자 “때 늦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날 현재 구제역으로 인한 살처분·매몰 가축 규모가 3695 농가·150만623마리에 이르고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살처분·매몰 닭·오리도 324만2216마리나 될 정도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에서 뒤늦은 결정을 내렸다는 지적이다.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 관련 정부지출만 1조5000억원대로 올라선데다 전국백신을 위한 1차 접종비용도 약 1000억원대에 이를 전망이다이어서 “피해는 피해대로 키우고 방역은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여기에 전국 백신을 위해서는 정부가 이미 확보했거나 구매가 진행중인 1100만 마리분 백신 외에 추가로 백신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불확실까지의 기간에 추가 피해도 예상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작년 축산물 수출 구제역 피해 100억원

수출 전년비 86% 감소

작년에 두 차례 발생한 구제역으로 축산물 수출이 전년에 비해 86% 이상 감소하는 등 최소 100억원 이상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됐다고 관세청이 13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축산물 수출은 2027t으로 전년(1만4907t)에

비해 무려 86.4%나 줄었고 금액 기준으로는 798만달러로 전년에 비해 58.5%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의 경우 1613t으로 전년에 비해 35.7% 감소했고, 돼지고기의 경우 414t으로 전년(1만2400t)에 비해 무려 96.7%나 줄어 타격이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필뉴스

Advertisement for Seoul Railway Go Go KTX. It features a large image of a KTX train and text promoting travel packages. The text includes "서울로 Go Go~ KTX타고가는 신나는 겨울여행" and "www.4100tour.com".

Advertisement for YU New South Sea Travel Agency. It includes a detailed schedule for a Seoul Railway sightseeing tour (1박 2일) and a list of travel packages with prices. The text includes "서울로 명소탐방 시티투어 기차여행(1박 2일)" and "유뉴남해여행사".